

사회

4년전 세상 떠났어도 광주선 아무도 몰랐다

어김없이 5월의 '그날'은 찾아왔다. '폭도'라는 오명에 치를 떨었던 암울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에 놓이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던가. 이제 5·18은 매년 국가행사로 엄수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단당하 5·18 기념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오기까지 갖은 편견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5

월 진상을 알리고, 명예회복에 앞장선 '또다른' 광주시민이 있었음을-. 광주를 고향같이 사랑했던 '부산 아지매' 황명자여사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는 몰랐다. 20년을 매년 5·18 묘지를 찾았던 그가 생을 달리했지만 조화 하나 보내지 못한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이다. 감사와 존경의 손을 내밀어야 할 그들을 위한 시리즈를 두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우리는 그들을 잊었나 <上>

'부산 5·18어머니' 황명자 여사

5·18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광주를 가슴으로 사랑했던 '부산 아지매' 황명자여사가 4년 전(당시 66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출신인 고인은 2007년 12월 7일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자택에서 간경화로 삶을 마감했다. 그러나 황여사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5월 18일은 물론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5·18민중항쟁 31주년을 앞두고 지난 14·15일 부산을 찾아 황여사의 행적을 확인했다.



88년부터 20년간 참배 묘역 제단 보수기금에 유족 학비도 지원해 줬

행사에 방문, 옛 5·18 망월 묘역에 제단이 훼손된 것을 보고 "제단 개조 비용으로 써 달라"며 5·18 유가족에게 성금 180만원을 내놓았다. 앞서 1988년 5월에는 80년 5월 당시 남편을 잃은 윤삼례(여·67)씨의 아들이 녀석지 못한 가정형편

으로 대학 입학금을 못 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입학금 50만원(당시 금액)을 건네기도 했다. 고인은 또 영·호남 화합 교류의 첫 물꼬를 트기도 했다. 5월 관련 단체와 부산 시민사회단체 간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5·18 옛 망월 묘역에는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설치돼 있다.

이 같이 5월 가족을 위해 애써온 그는 2004년 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방음이 뜸해지면서 5월 관련단체들과의 사이도 소원해졌다. 5월 관련단체들은 고인을 제대로 찾은 적이 없다. 그에게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 30주년 행사 초청장은 고사하고, 그 흔한 감사패나 시민상도 수여하지 못했다.

고인의 딸 이명미(47·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씨는 "해마다 5월이면 검은색 한복을 입고 광주로 향했다. 돌아가신 해까지 광주를 방문할 만큼 5월에 애착을 가졌던 분"이라며 "자주 다니던 집에서 5월 영령들을 위한 불공을 드렸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2007년 사망 당시 5월 관련단체에 어머니의 작고 사실을 알렸지만, 어머니를 기억하신 분이 없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면서 "뒤늦게나마(광주일보 취재진)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어머니가 5·18에 보낸 관심을 이어가고 싶다"고 울먹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산= 김호기자 kimho@



사랑도 명예도 ~

5·18 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식(18일)을 사흘 앞둔 15일, '5월 정신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31주년 국민대회·작은 음악회·풍물굿·연극

광주 곳곳 기념행사... 추모 분위기 고조

5·18 민중항쟁 31주년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시작되고,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전국에서 참배객들이 몰려드는 등 추모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시·도민 대동한마당'과 '5월 정신계승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사회·노동단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 5·18 정신인민·인권·평화를 열원했다. 특히 지난 13일 별세한 정광훈 한 국민전연대 상임고문에 대한 추모 시간도 가졌다.

광주·전남대학생연합 대학생들도 이날 민주주의 수호와 5·18 정신 계승을 외치며 조선대 광장부터 옛 전남도청까지 퍼레이드를 벌였다.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주관으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또 금남로 카톨릭센터 앞에서는 오월영령 풍물굿이, 5·18 기념공원 일대에서는 연극 등이 각각 진행됐다.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이날 추모객 1만 7000여명(낮 12시 기준)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16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와 함께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 등 300여명

을 초청,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5·18 31주년 하루 전날인 17일에는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전야제가 열릴 예정이며, 18일 오전 10시에는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 같은날 오후에는 5·18 기념재단에서 '2011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거행된다.

이와 함께 20일과 21일에는 무등경기장 일대와 5·18 민주묘지에서 각각 '민주기사의 날' 행사와 '전국취약대회'가 열린다. 5·18 31주년 기념 행사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진행되는 부활제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부산저축銀-신안월드 '3천억 커넥션'

檢, 거액 비자금 조성 포착·지자체 관계자 뇌물 조사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신안군 개발사업에 3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신안군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신안월드 관계자가 '부동산 매입자금' 외에 2억원의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올린 점에 주목, 박연호 회장 등은 행 대주주·임원들의 관련 여부를 캐고 있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신안군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인허가 권한을 지닌 지자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뇌물뇌비를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이 파악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신안군 개발사업 투자액은 작년말 기준 2995억원으로 1997~2006년 순

차적으로 설립된 SPC 9개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검찰은 신안월드 측이 토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모 수월 관계자에게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다른 로비 대상자가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라남도가 2007년부터 신안군과 고흥군 일대 573만평 부지에 건설하기로 추진한 '중소형 조선 특화도시' 사업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주간사로 참여한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도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과 지자체, 조선사들이 민관합작으로 SPC를 설립해 기반조성사업비 1조8488억원 등 모두 3조991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업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 대출사기 등 1조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임명석 회장 등 주요 임직

원이 구속기소된 씨엔그룹과 3000억 원대 사기대출로 임직원이 기소된 세광건설도 참여했다.

/연남뉴스

"5000만원 초과예금 보해그룹이 보장"

보해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보해 그룹이 나서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해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보해 저축은행 광주지점 앞에 모여 조직 구성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목표 지역 피해자들은 목표액 광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또 피해자들은 이달 안에 보해양조소 임건우 회장과 면담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을 보해양조소와 계열사 등 그룹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임동철기자 exian@

나원침 (8314) 김장두



비브리오패혈증 의심환자

최종 검사서 음성 판정

전남도는 최근 보성에서 발생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환자 정모(여·82)씨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부터 감기 증세를 보인 이후 오른쪽 팔 부위의 피부가 변색하고 수포가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보건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여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해 이중 50% 이상이 사망해 보건당국은 해안지역과 환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환자 등 고위험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배관 절도범 기방 뒤통고 갔다 멀리

○원룸 신축공사 현장을 돌며 구리로 만들어진 배관을 삼승적으로 훔친 40대가 범행 현장에 소지품을 두고가는 바람에 들킨다.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0)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시 북구 한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동배관을 공구로 잘라 훔쳐가는 등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의 동배관을 몰래 가져 갔다는 것.

○경찰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잇따라 수사할 발이던 중 치솔과 면도기 등이 든 가방을 발견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끝에 박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직 도의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장흥경찰 조사 나서

현직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정모(51·장흥 2-민주노동당)의원은 지난 11일 밤 9시50분경 장흥군 용산면 여산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최모(56)씨가 몰던 무쏘 승용차랑 충돌한 뒤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의원은 이날 장흥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칙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였는지 차량이 부딪힌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운전을 계속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음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몰고 3km 가량을 운전해 주차한 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취재본부=김홍기기자 kykim@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뺑소니 붙잡아

나주경찰은 15일 차량으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김모(30·운전업)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30분께 나주시 왕곡면 신희리 금동마을 앞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이모(71)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발생 4시간 가량 뒤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영암군 영암읍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위험한상견례 (15세)	1관	토르 (12세) / 토마스외친구들 (전체)
2관	체포왕 (12세)	2관	체포왕 (12세)
3관	천녀유혼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씨니 (15세) / 분노의 질주 (15세)	4관	옥보단 (18세)
5관	체포왕 (12세)	5관	씨니 (15세) / 적과의 동침 (12세)
6관	천더일레본 / 토르	6관	소스코드 (12세)
7관	옥보단 (18세)	7관	천녀유혼 (12세)
8관	분노의 질주 (15세)	8관	분노의 질주 (15세)
9관	짱구는못말려 (전체)	9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5세)
10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5세)	10관	천더일레본 / 위험한상견례
11관	소스코드 (12세)		
12관	토르-천둥의 신 (12세)		

조종 영화편만 어떠세요? / 호남최대주최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관 옥보단 (18세) **최고급관**

2관 워터포털리펀트 (15세) / 씨니 (15세)

3관 토르-천둥의 신 (12세)

4관 천녀유혼 (12세)

5관 옥보단 (18세)

6관 체포왕 (15세)

7관 소스코드 (12세)

8관 분노의 질주 (15세)

9관 씨니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타워, 황금주최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에 한함) / 34인 초저시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1관 천녀유혼 (12세)

2관 짱구는못말려 (전체)

3관 옥보단 (18세)

4관 위험한상견례 (15세)

5관 분노의 질주 (15세)

6관 토르 (12세)

7관 체포왕 (15세)

8관 소스코드 (12세)

9관 씨니 (15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